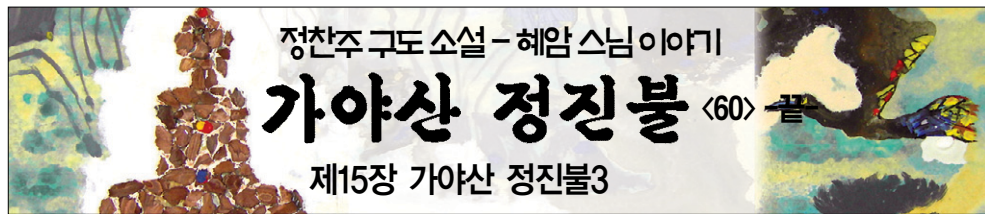


열반이라 해도 옳지 않고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



2002년 1월 6일.
 겨울바람이 울음을 멈추었다. 햇살이 영결식장인 구광루 마당에 쏟아졌다. 문상 온 스님들이 벵거지를 벗고 신도들은 두툼한 목도리를 풀었다. 일주문 밖에서 계속 밀려오는 추모객들의 마음이 모여져 강추위가 잠시 물러선 듯도 했다.
 영결식을 알리는 대중 소리가 났다. 이미 일주문에서 구광루 마당까지 인산(人山)이 되고 인해(人海)가 돼버렸다. 단 한 사람도 구광루 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다. 추모행렬은 한 덩어리가 돼 있었다. 추모객들은 해인사를 떠나게 될 해암의 법구를 보고자 발을 동동 굴렀다.
 해암의 법구(法具)가 든 관을 짚던 김일출 목수는 영결식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해인사 사하촌 위쪽에 자리한 다비장으로 다시 향했다. 도감 종성의 지시를 받아 생화로 꾸민 영결식단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다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다. 그러나 김 목수를 태운 트럭은 주차장까지 들어간 인파를 뚫고 빠져나가는 데 애를 먹었다.
 이윽고 해인총림 방장 법전이 원로회의 의장 자격으로 추도를 했다. 성철의 회상에서 해암과 탁마했던 세월이 떠오른 듯 법전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즐거 없는 꽃봉오리, 사들지 않는 만다라화로 종정스님의 법구를 장엄하고, 메아리 없는 가야산하(伽倻山下) 그림자 없는 낙락장송의 일편향(一片香)을 영전에 올립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유유자적 오고감고 없고, 생사 없

침침비봉산(鼎鼎飛鳳山)하고
 여여미소굴(如如微笑窟)인데
 선사귀하처(禪師歸何處)오.

비봉산은 침침하고
 미소굴은 여여한데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할!

김일출 목수가 탄 트럭은 의경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해인사 주차장을 벗어났다. 추무원장 정대의 영결사가 이어졌지만 그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다비단은 이미 이틀 전부터 10여 명의 일꾼들과 함께 장작과 숯과 벗질 등으로 설치하였고, 그 위에 연화단이 올려 졌지만 그래도 최종 마무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추모행렬은 일주문 너머까지 들어자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성철의 영결식 때도 목수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김 목수는 추모객 숫자를 어림셈할 수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추모객이 3만여 명은 돼 보였다. 구광루 마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숫자를 3천여 명으로 본다면 일주문 인파의 추모객들이 2만 7천 명 정도 된다는 어림셈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조사 순서 때는 영결식장 분위기가 더 숙연해졌다. 문화부장관이 대독하고 있지만 친필로 쓴 조사의 서두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신도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렸다.
 '존경하는 해암 종정 큰스님!



그림·최문정

설로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존경심과 한없는 그리움으로 그 공덕을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스님과는 잊지 못할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96년 이곳 해인사를 찾은 저에게 주신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큰스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에는 길을 가시다가 문득 저를 찾아 '방생'의 참뜻을 화두로 던져주시면서, 인간방생을 실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큰스님과의 이러한 인연은 국경은 영을 하는데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에는 호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이룩은 불교계입니다. 큰스님께서도 평소 나라를 걱정하며 국민대화합을 위해 발언하셨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역설해 오셨습니다.(종략)

만든 작품이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정 해암에게 '연꽃집' 한 채를 마련해 드린 셈이었다.
 마침내 해암의 법구가 이운되어 동그런 다비장에 도착하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추모객들이 스님들에게 밀려났다. 고승들과 해암의 문도들이 연화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대중스님과 추모객들은 뒤쪽으로 물러섰다. 또한 오색 만장들은 산자락으로 올라갔다. 해암의 법구가 연화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만장들이 몸부림치듯 나부꼈다.
 한 스님이 요령을 흔들며 의식을 집전했다.

신원적 해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색신은 비록 멀더라도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의 몸은 침착하여 깊고 고요한 모양입니다.
 이를 이음하여 크게 쉬는 땅이라 하고 육과 식견이 참으로 머무를 자리입니다.
 해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성품은 본래 넓고 커서 수승한 허공과 같고 참다운 성품의 높이 뛰어난 모양은 법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해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만일 업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마땅히 참회하십시오.
 아예에 진언이 있으니 삼가 마땅히 생각을 밝히소서.
 다나타 옴 아리다리 사바하
 다나타 옴 아리다리 사바하
 다나타 옴 아리다리 사바하.

황공으로 되돌리려는 듯 뿔뿔 타올랐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느 새 추모객들은 산 아래로 물러가고 해암의 문도만 남았다. 해암의 상좌와 신도들은 달이 뜬 줄도 모르고 다비장에 남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렀다. 다비식을 집전했던 스님이 다시 찾아와 요령을 잡고 아미타염불을 했다. 그런 뒤 어느 상좌가 <금강경>을 독송하자고 제의하자 모두가 따라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이십전선으로 세 번이나 독송하는 중에 한 노파가 젊은 보살의 부축을 받으며 다비장으로 왔다. 해암을 30년 넘게 시봉한 103세의 광명화보살이었다. 보살은 합장한 채 불 불은 연화단을 세 바퀴나 돌았다. 보살은 배운인사를 하는 것으로써 금강의 시봉을 다하고 있었다. 부축하고 있는 젊은 보살이 울음을 터뜨리자 나무였다.
 "큰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을 뭘요 없대이, 이제 다 던져버리고 도술천 내원궁으로 가실 텐데 슬플 것이 뭐요."
 광명화보살은 다비장을 의연하게 물러갔다.
 "이제 나도 본래 자리로 가신 큰스님 빈자리를 지키다가 갈 곳으로 갈까."
 자정 무렵부터는 불길에 안으로 잡히더니 숯불로 변했고, 새벽 4시쯤에는 숯불마저 한 무더기의 허연 재로 식었다. 아미타불을 외는 장발(唱佛) 소리는 진즉 가야산 산자락에 잦아든 뒤였다. 인간사가 한바탕 꿈인 듯 조용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풍경은 또 돌변했다. 해암의 법구가 지수화풍으로 완전히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것처럼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그러나 진눈깨비는 날이 밝아지면서 목회송이 같은 눈송이로 바뀌었다. 법전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해암 상좌들이 슬골할 무렵에는 함박눈으로 바뀌어 난분난 분분 내렸다.
 스님의 사리는 황금빛과 옥빛, 흑진주빛 등 모두 86과(顆)가 수습됐다. 상좌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해암당 성관 대종사의 영롱한 모습이었다. <끝>

거화봉의 불이 연화단에 옮겨 붙자 흐느낌 터져 인간사가 한바탕 꿈인 듯 조용히 막을 내리다

음을 보인 종정 스님의 모습 앞에 저희들은 유구무연입니다. 열반이라 해도 옳지 않고, 열반이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출가한 이래로 장좌불와와 일종식(一鍾食) 하면서 위법망구의 두타 고행정진으로 어떤 것이 수행자의 본분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가야산의 천바람 되어 저희들을 경책하는 법음으로 와 닿습니다.
 이제 종정 스님의 영정 앞에 영결식을 봉행하오니,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큼니다. 봉암사 결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그 기개를 이제는 어디에서 뵈울 수 있겠습니까.
 종정 스님께서는 가는 해의 마지막 날에 육신을 허공에 놓으시니, 어제와 오늘이 따로 없고, 전생과 내생도 없는 마음을 주인 삼아 시간과 공간에 주인이 되라는 말없는 가르침에 온 사부대중은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큰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하면서 슬픈 마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종성들을 위해서 베푸실 일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이렇게 홀연히 가시다니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해암 큰스님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불교계의 굳건한 거목이십니다. 1946년 출가하신 이래 평생 고행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성철스님, 자운스님 등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흥기를 이끄셨고, 원로회의 의장으로 종단 화합과 개혁을 통해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곳 해인총림의 제 6대 방장을 지내셨고, 조계종 제 10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우리 사부대중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대각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설법으로 중생을 감동, 교화하신 우리의 큰 스승이십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황폐화된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일깨우신 위대한 성현이십니다.
 한도 끝도 없는 큰스님의 법력을 어찌 몇 마디의 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이, 외로운 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님이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아끼며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큰스님께서 내려주시신 신년법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큰스님의 입적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애도 드리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여러분께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수가 다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추모객들이 올라와 있었다. 오전부터 연화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운구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추모객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사진기자들도 두꺼운 방한복 차림으로 섞여 있었다.
 연화단은 마치 거대한 홍련 같았다. 약수암 비구니 스님들이 닷새 동안 8천 장의 연꽃잎을 접어서

거화봉의 불이 연화단에 옮겨 붙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보살과 거사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스님! 집에 불났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한 번 불은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오후 2시에 거화된 불은 서너 시간 동안 불기둥이 되어 이글거렸다. 하늘로 치솟은 불길은 해암의 법구를 한 점 남김없이 지수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명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이녀 내듯하여
 연기가 내려라도 수지를 말지이다.
 불꽃이 내려나를 그레나 되기에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